

주의 만찬

조동호 목사(빛과 생명 교회)

그리스도교 의식에는 침례와 주의 만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교 예배 두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2천 년간 그리스도교 예배는 제1부 말씀의 예배와 제2부 성만찬 예배로 드러져왔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유대교 예배의 맥을 잇는 것으로서 예루살렘 성전 예배와 회당 기도회가 그것들입니다. 회당 기도회는 하나의 성전만 인정하는 유대인들이 바벨론 유배로 인해 성전 예배가 불가능해졌을 때 하루 세 번 드리던 제사예배를 대신하여 하루 세 번 ‘아미다’(“일어서서”란 뜻)란 18개의 기도문(“복 받으시오소서, 하셈이시여!”로 시작하는 베라코트)을 바치도록 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기도회는 제2성전시대와 헤롯성전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었고,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으로 성전예배가 완전히 불가능해진 이후로 더욱 발전되었으며, 기존의 ‘아미다’ 기도문에 이단에 대한 기도문이 하나 더 추가되어 19개가 되었습니다.

유대교인들의 기도회는 오전 오후 저녁 하루 세 번 매일 지속되지만, 성경(해당 주에 할당된 오경부분인 파라샤와 연관된 예언서구절인 하프트라)이 낭독되는 날은 안식일(유월절과 대속죄일 같은 명절 포함) 오전과 오후(다음 주 파라샤의 일부)이며, 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도 해당 주에 할당된 오경부분(파라샤)을 짧게 읽습니다. 설교는 낭독된 말씀들에 대한 해설이나 권면에 해당되지만, 필요하거나 요구될 때 선포되었습니다. 찬송으로는 몇 개의 시편들이 낭송(옹조림)됩니다. 그리스도교 예배의 틀(성경봉독, 말씀선포, 기도, 찬양)은 기본적으로 이들 회당기도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처음 시작될 때 그 구성원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고,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특히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그리스도인들)의 기도회모임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곧 일요일에 가집으로써 유대교와 차별화하였고, 회당 기도회를 상징하는 말씀 예배와 성전 예배를 상징하는 주의 만찬 예배를 모두 드림으로써(행 2:42) 역시 유대교와 차별화하였습니다. 그리스도교 초창기에는 주일이 공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의 만찬이 안식 후 첫째 날 해가 진 후 저녁에 있었고, 새벽에 다시 모여 기도회 또는 말씀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교의 19개 기도문인 아미다 대신에 주기도문을 하루 세 번 낭송함으로써 역시 유대교와 차별화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침례식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각각 한 번씩 세 번 물속에 침수세례를 함으로써 유대교의 정결례인 침수세례(미크베)와 차별화하였습니다. 이 모든 차이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주의 만찬 곧 성만찬 예배입니다. 유대교인들은 기도회 때 성전제사의식을 어떤 형태로든 기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가 탄생한지 360년쯤 지난 392년에 그리스도교가 로마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모든 예배의식이 제1부 말씀 예배와 제2부 성만찬 예배로 확실히 굳어져 오늘에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세기 초에 종교개혁가 츠빙글리가 주의 만찬을 연 4회로 확 줄여버렸고, 한 세대 뒤에 등장한 칼뱅에게 배운 존 녹스가 스위스의 개혁주의교회 전통과 칼뱅의 평신도 장로 대의제도를 도입해 만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예배에서 주의 만찬을 연 2-4회로 확 줄여 시행함으로써 오늘날까지 상당수 개신교회들에서 하나의 예배전통으로 굳어져버렸습니다. 이 잘못된 전통을 성경대로 복원하여 간략하고 단순한 방식으로 시행하자는 운동이 1700년대 중후반부터 유럽에서 시작되었고, 이 운동에 영향을 받았던 미국의 알렉산더 캠벨을 비롯한 개혁(운동)가들과 발톤 W. 스톤을 비롯한 그리스도인(운동가)들이

1800년대 초부터 간략하고 단순한 주의 만찬을 매주일 예배에 복원시킴으로써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예배전통으로 확실히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약성경에 드러난 대로 간략하고 단순한 예배와 매주 주의 만찬의 복원을 주장했던 장 칼뱅을 비롯한 신약교회 복원운동가들도 맥을 같이한 것이었습니다.

주의 만찬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전 11:24-25)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개혁주의 전통의 장로교회 등에서는 장로들의 검증을 통과한 교인들에게만 토권을 주어 성찬에 참여토록 하는 ‘닫힌 성만찬’을 시행해왔으나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는 자원하는 신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단순한 방식의 ‘열린 성만찬’을 시행해왔습니다. 칼뱅주의 교회들(장로교, 침례교)에서는 세례나 침례의 경우도 회심(구원)체험의 증거가 있는 자들에 한해서 베풀었으나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믿고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한 자원자들에게 죄 사함을 위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주의 만찬에는 빵과 포도주가 쓰입니다. 빵은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을, 포도주는 그분이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성경시대에 사용한 성찬에는 제법 큰 마른 빵 한 덩어리와 물을 배합한 포도주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의식용으로든 식용으로든 빵을 먹기 위해서는 먼저 한 덩어리의 빵을 작게 쪼개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몸 그리스도께서 찢기신 것을 상징했습니다. 고대 지중해연안에서는 포도주 1에 물 1에서 20까지 다양한 비율로 배합하여 마셨습니다. 물에 석회질이 많은데다가 오염이 흔해서 살균효과(알코올)가 있는 포도주를 섞어서 마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 쓰라”(딤후 2:23)고 권했던 이유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순교자 저스틴은 <제1변증서>(155년경)에서 주의 만찬 때 포도주에 물을 섞은 잔에 감사기도(성찬기도)를 드린다고 변증했습니다. 이 전통을 이어온 가톨릭교회에서는 지금까지도 제2부 성만찬예배 때 포도주에 물을 섞는 의식을 행하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오늘날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에서는 아주 작은 잔에 포도주 원액이나 포도주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랜 경험으로 볼 때, 교회나 집에서 담근 포도주는 관리도 어렵고 위생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사용여부를 고려해봐야 합니다. 빵은 누룩이 없는 반죽을 얇게 펴서 프라이팬에서 지져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눅눅해지고 식감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성제품으로 판매하는 질 좋은 포도주나 전병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덜 번거롭고 위생적이어서 추천할 만합니다.

가톨릭교회의 경우 성찬예배 때 사제가 의식용인 둥글고 제법 큰 전병(호스트)을 여러 조각으로 쪼개서 접시에 담은 후 한 조각을 집어서 물이 섞인 포도주에 찍어서 먼저 먹고 포도주 잔도 깨끗이 비웁니다(이를 영성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인들을 위해서는 따로 준비해둔 작은 전병만을 나눠줍니다. 간략하지만 동일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도 준비된 빵이나 전병을 쪼개는 의식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오늘날에는 대부분 이 의식을 생략합니다.

한국에서는 주의 만찬식의 집례를 대부분 목회자들이 합니다. 하지만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는 대체로 순번에 따라 장로들 혹은 장로들이 없는 작은 교회인 경우에는 목회자 혹은 집사들 중에서 집례를 합니다.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는 장로나 집사들이 평생직인 경우가 매우 드물고, 거의 다 매년 선거를 통해서 새로 선출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목회자들도 개 교회에 의해서 직접 선출되고, 그 책임도 설교와 심방과 같은 목회활동에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 교회의 권한은 회중에게 있고, 회중에 의해서 거의 매년 새로 선출되는 장로들과 집사들이 그 권한을 위임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 교회에서 목회자의 리더십은 연령에

상관없이 제도나 전통 혹은 관습에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만찬 예배는,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전통적으로 학습자들까지 모두 참여하는 말씀 예배를 끝내고 학습자들을 제외한 세례자 또는 침례자들이 참여하는 본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개신교회들에서는 본 예배이자 예배의 핵심이었던 주의 만찬을 일 년에 2-4차례로 줄여버렸기 때문에 설교가 예배의 중심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18-19세기 대각성운동의 영향으로 회개와 재 헌신을 요구하는 유행불 지옥 설교가 유행했었습니다. 이 무렵 미국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매주일 예배에 주의 만찬을 부활시켰고, 회개나 재 헌신을 요구하는 복음적 설교가 주를 이뤘을 뿐 아니라, 설교 마지막에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자들이나 재 헌신을 다짐하는 자들을 강단 앞으로 나오거나 일어서도록 초청하였으며, 만일에 초청에 응하는 자들이 나올 경우에 즉시로 신앙고백을 받아왔고 침례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예배가 채끝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대개는 강단 뒤쪽이나 최근에는 강단 앞 옆쪽에 설비된 침례탕에서, 침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의 만찬을 설교 전에 하는 경향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예배의 순서에는 맞지 않지만, 근현대에 개신교회들에서 복음적 설교와 찬양예배가 대세로 굳혀지면서 예배전통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만찬 예배는, 흑암을 빛으로, 혼돈을 질서로, 없음에서 있음으로 바꾸신 창조주 하나님, 즉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예배이자, 십자가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셨으며, 절망을 희망으로, 죄에서 구원을, 죽음에서 부활로 바꾸어 놓으신 교회와 성도의 머리되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추도하는 기념예배이며,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의와 평강의 나라를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약속 받고, 인침 받고, 보증 받으며, 선취하여 누리고 맛보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기원예배이기도 하고, 인간의 죄악성과 부족함을 인식하고, 세상과 물질의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청지기로서 섬김과 관리의 삶의 자세, 사랑과 베품의 삶의 자세로 살 것을 다짐하는 헌신예배입니다. 이처럼 주의 만찬은 감사와 기념과 기원과 헌신이 한데 어우러진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초기 개혁가였던 알렉산더 캠벨은 1846년에 주의 만찬이 “상징적,” “기념적”이며, 신자들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속죄되었다는 일종의 “매주 추억”이라고 진술하면서 “그것은 새로운 복들을 받기 위한 의식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들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목회자인 W. B. 블랙모어(Blakemore)는 1960년대 초에 주의 만찬이 신실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억”과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보답하는 그들의 기념(기억)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주의 만찬에서 “기념의 역할은 주님을 우리의 현존으로 모셔오는 것이 아니라, 기념이 우리의 눈을 그분에게로 열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분의 현존으로 불려가 있는 것(을 보는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또 W. R. 워커(Walker)는 기념의식이 계약갱신의 더 깊은 “엄숙한 서약”을 수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리가 매주 참여하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해 매주 기념하고 기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억과 자비에 보답하며, 매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분과 맺은 새 언약을 더욱 새롭게 갱신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에 관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약속이, 믿음이 약해지기 쉬운 우리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고 확실해질 것입니다.